

“섬세한 여성과학인 파워 국가 기술 발전 디딤돌”

정명희 박사

한 국화학연구원 생명화학연구부 책임 연구원 정명희(51) 박사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(이하 여성과학인회) 차기 회장에 선출되었다. 정 차기 회장은 2004년부터 업무를 수행한다.

지난 93년 발족한 여성과학인회는 과학인력의 저변확대, 정보 및 지식교류를 통한 연구업무를 협조,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 및 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한 전문직 여성 과학자들의 모임이다. 정 차기 회장은 “지난 10년간 여성과학인회를 중심으로 결집된 여성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”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. 정 차기 회장은 여성과학인회의 역할에 대해 “다양한 전공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차세대 여성과학인들이 진정한 연구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호결집과 신뢰, 협동의 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”고 말했다.

전공분야별로 연구를 하고 있는 국가연구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은 선배 여성과학자들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후배 여성과학자들이 성심껏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지적, 인적 자원의 구심점이다.

이와 관련하여 정 차기 회장은 ‘산학연 협동’이라는 국가과학기술인들의 또 다른 과제가 국가연구기관 및 출연연구기관과 여성과학인회원 중심으로 보다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확신했다.

정 차기 회장은 재임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. 먼저 여성과학기술인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해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취업난 해결에 힘 쏟을 생각이다. 또한 다른 조직 및 정부기관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여성과학인력을 전문인 중심의 연구과제 기획 및 연구과제 도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.

정 차기 회장은 “앞으로 여성과학인회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단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며 과학기술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.

글_김유경 | 본지 객원기자



지난 93년 발족한 여성과학인회는 과학인력의 저변확대, 정보 및 지식교류를 통한 연구업무를 협조,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 및 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한 전문직 여성 과학자들의 모임이다. 여성과학인회에는 현재 1000여명의 여성과학기술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.

정명희 회장은 이화여대 약학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, 독일 마르부르크 필립스대학교에서 약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. 독일연방과학재단 연구원, 필립스대학교 객원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화학연구원 생명화학연구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.